

## 북한의 고등학교 『조선력사』의 고대사 인식과 민족 서사의 변화\*

강진웅\*\*

이 논문은 북한의 고등학교 『조선력사』의 고대사 인식에서 나타나는 민족 서사와 담론의 변화를 분석한다. 국가 형성 초기 유물사관에 기초했던 북한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1970년대 이후 주체사관이 정립되면서 반제국주의에 기반한 자주적 역사관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신라의 삼국 통일을 깎아내리고 고구려와 발해의 민족관을 높이 평가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기치 아래 단군조선의 역사를 복원하고 조선옛류형사람을 도입하여 고조선의 민족사적 원류를 강조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2013년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는 혈통 중심의 단일민족론을 정립하고 유물사관 및 주체사관과 단군민족사관을 결합하여 고조선-고구려-발해의 민족사적 연속성과 평양 중심의 역사관을 내세우고 있다. 시대적, 정치적 변화에 따른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혈통 중심의 원초론적, 영속론적 근원주의에 입각한 민족 정체성 교육을 강화해 온 것이다. 이 논문은 국가 형성, 주체사관 형성, 단군역사 도입, 김정은 집권에 주목하여 1953년, 1982년, 2002년, 2013년 『조선력사』 교과서들의 고대사 인식과 민족 서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민족 정체성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탐색한다.

주제어: 조선력사, 민족 담론, 단군조선, 단일민족, 원초론, 영속론, 혈통

\* 이 논문은 2024학년도 경기대학교 연구년 수혜로 연구되었음.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교수.

## 1. 들어가며

이 논문은 북한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대한 담론 분석을 통해 고조선으로부터 남북국에 이르는 고대사의 인식과 민족 서사의 변화를 탐색한다. 북한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국가 형성 초기에는 계급론적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했고, 1970년대 이후에는 주체사관이 정립되면서 반제국주의와 민족 자주성에 기초해 역사를 서술했다.<sup>1)</sup> 이러한 기초에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높이 평가하고 외세를 끌어들이는 통일 신라에 대해 비판적인 기초를 강화했다. 또한 북한 정권은 1980년대 후반부터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사회주의의 위기에 대응했고, 1994년 단군릉을 복원한 이후 ‘단군조선’의 역사를 도입하여 ‘혈통’에 입각한 민족 담론을 발전시켰다. 2013년 김정은 정권의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는 단군조선의 역사관을 유물사관 및 주체사관과 결합하면서 ‘단일민족’의 개념을 정립하기에 이르렀다.<sup>2)</sup>

역사적으로 해방 정국을 거쳐 1950~1960년대 북한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맑스의 역사 유물론과 계급론적 관점에 입각해 고대사를 서술했던 반면, 민족 담론과 서사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다.<sup>3)</sup> 그러나 초기의 역사 교과서들은 백남운의 역사 인식과 계급론적 관점에 기초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시 및 고대 국가의 원류를 설명하는 것에서 혈통을 중심으로 씨족-부족-종족-민족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원초

---

1) 통일교육원,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서울: 통일교육원, 2005), 12~17쪽.

2) 오영철·정성철·리정희·강철민·김혜은, 『역사교수참고서 고급중학교 1』(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4).

3) 김석형·박시형, 『조선력사』(동경: 학우서방, 1953).

론적, 영속론적 관점을 전제했다.<sup>4)</sup> 1950~1960년대 북한의 역사학계는 고조선 논쟁을 통해 고대국가의 민족사적 원류에 관심을 가졌고,<sup>5)</sup> 이와 함께 고구려사<sup>6)</sup>와 발해사<sup>7)</sup> 연구를 진작시켜 역사 교육에 반영했다. 또한 1970년대 이후에는 원시 공동체의 ‘조선옛류형사람’을 학문적으로 정립하려고 노력했다.<sup>8)</sup>

이러한 가운데 민족 정체성 교육과 관련하여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단군시조, 단군조선, 단일민족의 역사와 개념이 고대사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였다.<sup>9)</sup> 1990년대 후반 들어 고조선과 단일민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sup>10)</sup>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역사과학』에서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고조선과 발해를 다룬 논문들이 다수를 차지했다.<sup>11)</sup> 무엇보다도 북한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혈통과 지역(평양)을 매개로 하여 단군조선과 조선옛류형사람의 원류로부터 고조선-고구려-발해의

4) 이정빈, “1950년대 북한 역사교과서의 민족형성 이해와 한국사 체계의 변화,” 『한국사학보』, 제83호(2021).

5) 리지린, 『고조선연구』(평양: 과학원출판사, 1963); 황철산, “고조선의 위치와 종족에 대하여,” 『고조선에 관한 토론 논문집』(평양: 과학원출판사, 1963).

6) 손영중, 『고구려사』, 제1권(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7) 박시형, “발해사연구를 위하여,” 『역사과학』, 1962년 제1호(1962); 주영현,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자,” 『고고민속』, 제2호(1967).

8)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1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오영철·한영찬, 『조선력사(고등중학교 3)』(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9).

9) 리인형, 『조선력사(고등중학교 2)』(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5).

10) 이경섭, “북한 역사학계의 고조선 종족집단 인식의 변천과 특징,” 『백산학보』, 제106호(2016).

11) 전덕재, “남북한학계의 한국고대사 연구동향과 과제: 2000년 이후 연구를 중심으로,” 『동양학』, 제72호(2018).

민족사적 연속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sup>12)</sup> 원초론적, 영속론적 관점에서 고조선의 민족사적 원류와 고구려-발해의 민족사적 연속성 및 고려의 민족통일을 강조하며 단일민족론을 정립했다.<sup>13)</sup> 이러한 배경에서 2013년 교육과정 개정 이후 김정은 정권의 고등학교 역사 교육은 주체사관과 단군민족사관을 결합하여 원초론적, 영속론적 민족 담론을 정치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유물사관, 주체사관 및 단군조선의 역사관을 결합하여 계급론적 관점에서 민족 자주성을 강조하고 단일민족의 혈통과 영속성을 앞세우는 민족 정체성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와 정치적 굴곡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역사 교과서들은 단일민족과 혈통적 연속성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거나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역사 서술을 발전시켰고 이러한 민족 담론의 바탕에는 원초론적, 영속론적 근원주의가 작동해 왔다. 이 논문은 국가 형성기, 주체사관의 형성, 단군조선의 복원, 2013년 교육과정의 시기를 통시적으로 고찰하면서 북한의 고등학교 『조선력사』 교과서의 고대사 인식과 민족 담론의 변화를 분석한다.

---

12) 오영철, 『조선력사(고등중학교 3)』(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오영철·정성철·박영철·차영남·염상진, 『력사(고급 1)』(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

13) 한영찬·리금옥·최창길·박영철·염창진, 『력사(고급중학교 2)』(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4), 9쪽.

## 2. 북한의 고대사 인식과 민족 정체성

유물사관과 주체사관을 적용하는 사회주의의 특성과 시대적, 정치적 변화에 따른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역사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혈통과 종족을 중심으로 한 민족 정체성과 이에 대한 근원론적 관점을 견지해 왔다. 민족의 뿌리와 지속을 강조하는 근원론적 관점은 남북한의 역사학계가 공통적으로 지향해 온 시각이며 북한의 역사 교육은 이러한 근원론적 관점을 주체사상과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역사 교과서와 민족 정체성 교육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근원론적 민족 이해를 성찰하고 이를 비판하는 근대론적 관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근원론과 근대론 간 논쟁은 민족이 어떤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근대에서 만들어진 것이냐의 문제를 쟁점으로 한다. 근원주의는 민족을 전근대에서 근대에 걸쳐 종족적 뿌리가 확대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는 원초론적 접근<sup>14)</sup>과 전근대의 종족적 실체가 생존하여 근대 민족으로 이어졌다는 영속론적 접근<sup>15)</sup>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어떤 입장에 있든 근원주의는 민족을 전근대적 산물로서 종족과 공통의 문화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역사적 결과로 해석한다.<sup>16)</sup> 북한의 민족 담론 역시 혈통을 근거로 한

---

14) Steven Grosby, "The Primordial, Kinship and Nationality," in Atsuko Ichijo and Gordana Uzelac(eds.), *When is the Nation?: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ories of Nationalism*(London: Routledge, 2005).

15) John Armstrong, *Nations Before Nationalism*(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2).

원초론적 관점과 장기적인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영속론적 관점을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조선력사』 교과서들은 시기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혈통적 단일민족을 전제하거나 가시화하며 민족 정체성을 옹호하는 것에서 일관된 흐름을 보여준다. 북한의 초기 역사 교과서들은 단군조선을 인정하거나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조선민족의 역사성을 중심으로 원초론적, 영속론적 관점을 전제했고,<sup>17)</sup> 이후의 역사 교과서들은 단군민족의 복원을 거쳐 근원주의적 민족 정체성을 공고화했다.<sup>18)</sup> 다음은 원초론적, 영속론적 근원주의와 관련된 북한의 고대사 인식의 쟁점들을 정리한 것이다.

- 원시 공동체와 고대국가의 민족사적 원류
- 고조선의 국가 성격 변화
- 조선옛류형사람의 역사적 의의
- 단군신화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평가
- 단일민족론
- 삼국에 관한 시대 구분

---

16) 아자 가트(Azar Gat)·알렉산더 야콥슨(Alexander Yakopson), 『민족: 정치적 종족성과 민족주의, 그 오랜 역사와 깊은 뿌리』, 유나영 옮김(서울: 교유서가, 2020), 35~43쪽.

17) 김석형·박시형, 『조선력사』; 홍성찬·신예순·강백영, 『조선력사(고등중학교 3)』(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2).

18) 리인형, 『조선력사(고등중학교 2)』; 오영철, 『조선력사(고등중학교 3)』; 오영철·정성철·리정희·강철민·김혜은, 『력사교수참고서 고급중학교 1』; 오영철·정성철·박영철·차영남·염상진, 『력사(고급 1)』; 한영찬·리금옥·최창길·박영철·염창진, 『력사(고급중학교 2)』.

- 고구려사, 발해사 강조와 신라사 폼훼
- 남북국 인식의 문제
- 평양을 중심으로 한 고조선-고구려-발해의 민족사적 연속성
- 고려에 의한 민족통일

고대사를 다루는 북한의 역사 교육에서 원시 공동체 및 고조선의 민족사적 의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고 민족 자주성을 강조하는 배경에서 고구려사와 발해사가 부각되고 외세를 끌어들이신라의 삼국 통일은 사대매국 행위로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북한의 역사 교과서들은 삼국과 남북국 시대의 인식에서 신라의 통일을 폼훼하면서 고려에 의해 한민족이 통일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단군조선의 복원 이후 단군, 단군신화, 단군조선, 단일민족의 개념과 담론은 물론 고조선-고구려-발해의 민족사적 연속성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시켜 왔다.

이와 함께 북한의 민족 정체성 교육은 정치적 민족 담론의 변화와 역사적 궤를 같이했다. 예를 들어 1970년에 펴낸 『철학사전』에서 북한은 스탈린의 민족 개념을 수용하여 민족을 언어, 지역, 경제생활, 문화와 심리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평가했다.<sup>19)</sup> 그러나 사회주의의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한 1985년 『철학사전』에서는 민족을 “피줄과 언어, 령도와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 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sup>20)</sup>으로 정의하면서 스탈린의 민족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1989년 김정일은 조선민

19) 사회과학출판사 엮음,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256쪽.

20)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246쪽.

족제일주의를 내세우며 민족 담론을 명시적으로 강조했다.<sup>21)</sup> 더욱이 1994년 김정일은 단군을 ‘조선의 건국 시조’로, 김일성을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칭했고 조선민족을 ‘김일성민족’이라 부르기도 했다.<sup>22)</sup> ‘김일성민족’과 ‘김정일민족’이란 개념의 정치화에서 잘 드러나듯이 북한은 원초론적, 영속론적 민족 개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남한에서도 신채호에 의해 구체화된 단군시조론과 단일민족론은 신민족사학자 손진태에 의해 계승되었고,<sup>23)</sup> 이승만 정권 이후 분단체제에서 권위주의 국가들의 지배 담론으로 활용되었다. 1908년 신채호는 “독사신문”에서 “단순한 혈족으로 전해져온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혼합한 여러 민족으로 결집된 국가일지라도 반드시 그중에 항상 주동이 되는 특별한 종족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나라가 나라로 될 것이다”<sup>24)</sup>라며 종족 중심의 민족관을 드러냈고 우리 민족을 “동국의 주족인 단군의 후예들”<sup>25)</sup>로 정의했다. 고조선은 여러 이민족을 포함하는 ‘동국민족(東國民族)’의 먼 조상이었고 동국민족의 주종족으로서 부여족이 “신성한 종족인 단군의 자손들”이자 “지난 4천 년 동안 이 땅의 주인공이 된 종족”이었다는 것이다.<sup>26)</sup> 단군조선의 단일종족국가에 대

---

21)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2)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김정일 선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427~428쪽.

23) 손진태, 『중학교 사회생활과 역사부분 우리 나라 생활(대한민족사)』(서울: 을유문화사, 1950); 신채호, 『조선상고문화사 외』, 박기봉 옮김(서울: 비봉출판사, 2007).

24) 신채호, 『조선상고문화사 외』, 214쪽.

25) 위의 책, 215쪽.

26) 위의 책, 218쪽.



한 신채호의 불분명한 역사 인식에도 불구하고 신용하는 고조선족으로부터 삼국의 부족국가로 이어지는 ‘원민족’이 형성되었고 원민족이 전근대 민족에 이어 현재의 민족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sup>27)</sup> 북한의 초기 역사 교과서의 뼈대를 세운 백남운이 『조선사회경제사』에서 모계씨족, 부계씨족, 부족, 종족의 발전 과정에서 민족이 형성되었다고 이해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sup>28)</sup> 그러나 원민족은 물론 부족, 종족 등은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고 민족과의 관련성을 분명히 보여주지 못하며 이러한 역사 인식에 근거한 단일민족론은 역사적으로 실증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고려 후기 대몽항쟁 과정에서 단군시조론이 문자화되었고 20세기 초 일제에 의한 국권 강탈의 위기에서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민족 담론이 형성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면,<sup>29)</sup> 우리의 민족 정체성은 추상적 수준에서 이념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일민족으로 흔히 언급되는 일본의 사례에서도 제국주의적 대동아공영론에서 단일민족론과 혼합민족론이 경쟁했고 단일민족론은 정치적 맥락에 따라 좌우되는 가변성을 지녔다.<sup>30)</sup> 이로써 민족을 종족의 혈연적 대집단으로 이해하는 남북한의 역사 인식은 실증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

27) 신용하, 『한국민족의 형성과 민족사회학』(서울: 지식산업사, 2001), 344~345쪽.

28) 백남운, 『조선사회경제사』, 심우성 옮김(서울: 동문선, 2004).

29)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서울: 소나무, 1999); 정구복, 『한국중세사학사(I)』(서울: 집문당, 1999); 한철호·강승호·권나라·김기승·박지숙·임선일·조왕호·조용래, 『고등학교 한국사』(서울: 미래엔, 2020).

30) Eiji Oguma, *A Genealogy of 'Japanese' Self-Images*(Melbourne: Trans Pacific Press, 2002).

이며 단군조선의 역사와 근원론적 민족 담론을 정치화한 북한의 역사 인식은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대론적 관점에서 근원론적 인식의 문제들을 성찰해 보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근대론적 관점은 민족을 민족주의에 의해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근대적 산물로 이해한다. 근대론적 관점은 산업화, 자본주의, 국민국가 등의 맥락에서 복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다양한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주장은 민족이 민족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근대성의 산물이라는 것이다.<sup>31)</sup> 여기서 북한의 역사 교과서가 실증 불가능한 민족 개념에 기반하여 근원론적 민족 서사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근원론에 대한 근대론적 비판과 성찰이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은 중요한 정치적 모멘텀에서 출간된 북한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대한 담론 분석을 통해 근원주의적 민족 정체성 교육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다음은 이 논문에서 분석하는 『조선력사』의 단원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분석 대상이 되는 교과서는 김석형, 박시형이 공동 집필하여 1953년에 펴낸 『조선력사』, 홍성찬, 신예순, 강백영이 공동 집필하여 1982년에 출간한 『조선력사(고등중학교 3)』, 오영철이 집필하여 2002년에 펴낸 『조선력사(고등중학교 제3학년용)』, 오영철, 정성철, 박영철, 차영남, 염창진이 공동집필하여 2013년에 출간

---

31)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London and New York: Verso, 1991);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Oxford: Basil Blackwell, 1983); Eric Hobsbawm and Terence Ranger(eds.), *The Invention of Tradition*(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표 1〉 북한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와 단원 구성

교과서	단원 구성
김석형·박시형, 『조선력사』, 1953	제1장 우리 나라의 원시 공동체 제2장 북방 종족 제3장 남방 제 종족 제4장 3국의 발전 제5장 7세기 초의 외래 침략자를 반대하는 고구려 인민의 투쟁 제6장 신라의 통일 제7장 3국의 문화 제8장 통일 신라와 후삼국
홍성찬·신예순·강백영, 『조선력사』, 1982	제1장 원시 공동체사회 제2장 노예소유자사회, 고대국가들 제3장 봉건사회의 성립, 세나라와 가야국들 제4장 발해와 후기신라, 9세기 농민전쟁
오영철, 『조선력사』, 2002	제1장 원시 공동체사회 제2장 노예소유자사회 제3장 봉건사회, 첫 봉건국가들 제4장 발해와 후기신라
오영철·정성철·박영철·차영남·염창진, 『력사』, 2013	제1장 원시 공동체사회와 노예소유자사회 제2장 세나라와 발해 및 후기신라, 세나라 시기의 세계

한 『력사(고급 1)』이다.

### 3. 북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고대사 인식과 민족 정체성 교육

#### 1) 1953년 『조선력사』 교과서

1953년 『조선력사』 교과서는 맑스의 역사 유물론에 따라 고대사를

원시사, 고대사, 중세사로 구분하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여 중앙집권적 봉건국가를 세운 시점을 중세사의 기점으로 파악한다.<sup>32)</sup> 이 같은 시대 구분은 1950년대 후반까지 적용되었는데, 이는 『조선력사』 등의 역사 서술이 백남운의 조선사 연구에 기초했기 때문이다.<sup>33)</sup> 단군신화와 조선민족사 서술에 대해 백남운은 『조선사회경제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단군 신화를 조선사의 출발점으로 삼은 과거의 환상을 소멸시키기 위함이다. 둘째, 단군 신화는 결코 조선 민족 발전사의 기원이 아니라 비교적 후기의 것으로 원시적 생산 관계의 붕괴 과정을 나타내며, 더구나 문명기의 입구로 다가갔음을 나타내는 계급적 이데올로기임을 밝히기 위함이다.<sup>34)</sup>

이처럼 백남운은 단군신화를 조선사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을 거부하며 계급사관에서 조선사를 이해했다. 조선 민족의 시원으로서 단군신화를 실재화, 신비화하는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sup>35)</sup> 따라서 1953년 역사 교과서 역시 단군신화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맑스

---

32) 김석형·박시형, 『조선력사』, 43쪽. 북한 학계는 원시, 고대(고조선, 부여, 구려), 중세(삼국, 통일 신라/발해, 고려, 조선), 근대, 현대로 시대를 구분하는 반면, 남한 학계는 고대(선사, 고조선, 삼국, 통일 신라/발해), 중세(고려), 근세(조선), 근대, 현대로 시대를 구분한다.

33) 이정빈, “1950년대 북한 역사교과서의 민족형성 이해와 한국사 체계의 변화,” 69쪽.

34) 백남운, 『조선사회경제사』, 41쪽.

35) 위의 책, 31쪽.

의 역사 유물론과 백남운의 역사 인식에 기초한 1953년 역사 교과서에서 유물사관의 시대 구분과 계급투쟁의 관점이 중요한 틀이 되었던 반면 민족에 관한 분석은 큰 관심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민족의 기원과 형성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원초론적 관점에서 민족의 기원을 설명하려 했다.

오늘날의 우리 조선과 만주에 걸쳐 살고 있었던 오랜 옛날의 여러 종족 중에서 먼저 국가를 가지게 된 것은 북방의 여러 종족이었다. 그 중에서도 조선 종족은 처음에는 료하의 증류를 중심으로 하여 그 남쪽과 북쪽에 살면서 서기 전 221년에는 그 서쪽에 있었던 중국 북쪽의 연 나라와 전쟁하여 많은 땅을 빼앗겼다고 한다.<sup>36)</sup>

1953년 역사 교과서는 여러 고대국가 중의 하나로서 고조선이 청동기와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성립했다고 평가했다.<sup>37)</sup> 최초로 계급국가를 형성한 '북방 종족' 중의 하나로 본 것이다. 또한 고조선, 부여족, 고구려족인 북방 종족과 마한족, 진한족, 변한족인 남방 종족이 각기 자신의 계급국가를 형성했다고 서술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53년 교과서는 계급론의 관점에서 원시 공동체의 '씨족'이 모여 '부족'을 이루고 부족이 연합하여 '종족'을 이루며 계급 분화와 종족 간 전쟁을 거쳐 국가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했다.<sup>38)</sup> 종족 간 대립과 통일에 의해 구성된 계급국가가 바로 고대 노예제 국가가

---

36) 김석형·박시형, 『조선력사』, 9쪽.

37) 위의 책, 9쪽.

38) 위의 책, 9~17쪽.

되는 것이며 고조선은 이러한 역사적 단계에서 출현한 것이다.

1953년 역사 교과서가 고대사 서술에서 원초론적 민족 개념을 전제하면서도 이를 분명히 드러내지 않았던 반면 1962년 교육성이 펴낸 『조선력사(상)』는 “우리 민족은 단일한 민족이고 역사적으로 항상 외적의 침공을 받아 왔기 때문에 민족적 단결심이 강하고 민족성과 민족적 자손심이 매우 강하다”<sup>39)</sup>며 단일민족론을 중심으로 한 원초론적 민족 이해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처럼 1950~1960년대 북한의 역사 교과서들은 고대국가 형성에 선행하여 단일종족(단일민족)이 형성되었다고 전제했다.<sup>40)</sup> 삼국은 이미 단일민족이었기 때문에 삼국의 대립과 전쟁은 동족 간의 갈등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삼국에 관한 분석에서 1953년 교과서는 이후의 교과서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균형 있는 서술과 평가를 보여주었다. 1953년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 속에서도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인정했다.

오랫동안 외적과 용감하게 싸우던 고구려 인민들은 조국 강토에 머물러 있는 침략군과 또 이와 결탁한 지배 계급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이와 용감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투쟁은 압록강 이남에서도 몇 년 동안 치열하게 벌어지었다. 신라 귀족이 당 나라의 군대를 불러들인 것은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백제, 고구려의 토지와 인민을 저의 지배하에 두고자한 데 목적이 있었으며, 그리고 당 나라 군대가 침략해 온 것은 신라의 이러

---

39) 교육성, 『조선력사(상)』(동경: 학우서방, 1962), 3쪽.

40) 이정빈, “1950년대 북한 역사교과서의 민족형성 이해와 한국사 체계의 변화,” 88쪽.

한 요구를 달성시켜 주려고한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 나라는 당 나라  
대로 또한 두 나라를 자기의 령토로 만들려고 하였던 까닭이다.<sup>41)</sup>

1953년 역사 교과서는 이후의 교과서들처럼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당나라를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  
었다. 그러나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를 ‘통일 신라’로 칭하며 “신라 국  
가와 귀족들의 지배하에 있는 토지와 인민들의 수효는 그 전의 몇 배  
나 되었다. 신라의 국가와 귀족들은 인민들을 노예적으로 착취하기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신라는 통일을 계기로 하여 봉건 사회로 들어갔  
다”<sup>42)</sup>고 지적하고, 통일 신라에 들어 중세 봉건제가 시작되었다고 평  
가했다.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이 결합하여 세운 ‘진국’(발해) 역시 고  
구려를 계승한 봉건국가로 이해했다.<sup>43)</sup> 그러나 이후의 교과서들과 비  
교해 남북국의 시대 인식은 뚜렷하지 않았으며 발해의 민족사적 의의  
를 크게 부각시키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민족 정체성과 관련하여 1953년 역사 교과서의 주된 특  
징은 민족 개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고조선, 삼국, 남북  
국 모두 동족의 형태로 이해하는 원초론적, 영속론적 민족 이해를 바  
탕으로 했다는 점이다. 1953년 교과서는 삼국을 고조선과 함께 고대  
노예제 사회로 규정했고,<sup>44)</sup> 이것은 삼국을 중세 봉건제 사회로 이해  
한 이후의 교과서들과 비교되는 것이다. 또한 삼국의 역사와 발전에

---

41) 김석형·박시형, 『조선력사』, 41~42쪽.

42) 위의 책, 43쪽.

43) 위의 책, 44~45쪽.

44) 위의 책, 12쪽.

관한 균형 있는 분석을 보여주면서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을 최초로 봉건국가를 세운 민족통일로 인정했다.

## 2) 1982년 『조선력사』 교과서

1982년 『조선력사(고등중학교 3)』는 주체사상이 정립된 이후 출판된 역사 교과서로서 유물사관과 주체사관을 결합하여 역사를 서술한 특징을 갖는다. 1982년 역사 교과서는 <머리말>에서 “조선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력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의 지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합니다”라는 김일성의 교시를 언급하며 “조선력사 학습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발전에 대하여서도 알아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할 것을 주장했다.<sup>45)</sup> 1982년 역사 교과서는 역사 유물론에 기초하면서도 반제투쟁과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주체사관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2년 교과서부터 고대 조선의 문화가 일본에 전해진 역사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sup>46)</sup>

1953년 교과서와 비교해 1982년 교과서에서 두드러진 차이는 고구려사와 발해사에 관한 자주적인 관점이 부각되고 원시 공동체와 고조선의 민족사적 원류가 강조된 점이다. 1982년 역사 교과서는 “류인원이 자연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가진 사람으로 되기까지에는 로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라며 원시 공동체의 기원에서부터 주체

---

45) 홍성찬·신예순·강백영, 『조선력사(고등중학교 3)』, 4쪽.

46) 위의 책, 33~37쪽.



사관을 적용했고,<sup>47)</sup> 평양을 중심으로 한 구석기 시대의 ‘검은모루’ 유적과 ‘력포사람’ 등의 고인 뼈화석을 소개했다.<sup>48)</sup> 원시 공동체의 고인 유적, 유물로부터 조선민족의 원류를 드러내려 한 노력은 구석기 후기의 신인과 씨족 공동체에 대한 평가에서도 이어졌다. 1982년 역사 교과서는 고대국가의 종족과 민족의 바탕을 이루는 씨족 공동체가 신인이 존재했던 구석기 후기부터 기원전 5천년경부터 시작하는 신석기 시대까지 존재했다고 기술했다.<sup>49)</sup>

또한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까지 존재한 모계 씨족이 기원전 2천년대에 시작한 청동기 시대에 들어 부계 씨족 공동체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했다.<sup>50)</sup> 여기서 역사 교과서는 “아버지의 피줄로 이루어진 큰 가족이 씨족의 생산단위로 되었다”<sup>51)</sup>며 ‘피줄’을 중심으로 한 부계 씨족 공동체가 종족으로 발전했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고인들을 “씨족장과 종족장의 무덤”으로 소개하기도 했지만 씨족에서 발전하여 노예소유자 사회를 형성하는 종족의 정체성을 명확히 분석하지 않았다.<sup>52)</sup> 원시 공동체가 붕괴하고 부계 씨족 공동체가 종족적 통일을 거치는 모호한 과정에서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수립된 것이다.

이에 대해 1982년 역사 교과서는 “원시 공동체 사회의 문화는 비록 유치한 것이었으나 우리 나라 민족문화의 첫싹이었다”라고 언급함으

---

47) 위의 책, 5쪽.

48) 위의 책, 6~9쪽.

49) 위의 책, 10쪽.

50) 위의 책, 15~17쪽.

51) 위의 책, 17쪽.

52) 위의 책, 19~20쪽.

로써 우리 민족의 원류가 형성된 시점을 원시 공동체 사회로 끌어올렸다.<sup>53)</sup> 이는 우리 민족의 첫 국가인 고조선이 원시에서 고대로 이행하는 시점에서 형성된 것을 고려한 서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982년 교과서가 고조선을 “우리 나라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노예소유자 국가”<sup>54)</sup>라고 규정했듯이, 고조선은 고대 노예제 계급국가의 특성과 혈통을 중심으로 여러 씨족, 종족이 통일된 종족국가의 특성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고조선은 기원전 8~7세기 이전에 세워졌다”<sup>55)</sup>고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고조선의 건국 시점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서술에 머물렀다.

더욱이 단군조선의 역사를 강조하는 이후의 교과서들과 달리 1982년 교과서는 단군신화를 간접화법으로 짧게 소개하며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sup>56)</sup> “통치배들이 자기에게 리롭게 꾸며내고 보태넣은 것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역사가 아주 오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up>57)</sup>며 고조선의 역사성만을 강조했을 뿐 단군신화를 통치자들이 꾸며 낸 이야기로 단정했다. 이와 같이 고조선은 신석기와 청동기의 과도기, 즉 원시 공동체가 붕괴하는 시점에 등장했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부재했고 계급 분화, 국가 발생, 노예 착취 등의 개념을 통해 원시 공동체가 고대 노예소유자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만이 강조되었다.<sup>58)</sup>

---

53) 위의 책, 23쪽.

54) 위의 책, 24쪽.

55) 위의 책, 24쪽.

56) 위의 책, 35~36쪽.

57) 위의 책, 36쪽.

이러한 가운데 1982년 역사 교과서는 고조선과 부여를 중심으로 고대국가의 노예제 특성과 계급 착취를 비판했고, 기원전 1세기경 부여가 고구려에 의해 약화되었던 즈음에 고대 노예제 사회가 중세 봉건제 사회로 전환되었다고 서술했다.<sup>59)</sup> 1953년 역사 교과서가 고구려를 고대 노예제 국가로 이해한 것과 비교해 1982년 역사 교과서는 “고구려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봉건국가였다”<sup>60)</sup>며 고구려를 중세 봉건제의 기점으로 평가했다. 이는 고구려의 민족성을 강조하고 봉건국가로서의 발전상을 부각시켰던 주체사관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2년 역사 교과서는 인민들을 억압, 착취한 중세 봉건제 사회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나라’(삼국) 시기에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날의 우리 나라 력사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강하였던 시기는 고구려 시대였습니다”라며 고구려의 강성과 민족사적 의의를 부각시켰다.<sup>61)</sup> 1953년 교과서와 비교해 1982년 교과서는 수나라의 침입과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당나라의 침입과 연개소문 및 양만춘의 안시성전투를 상당한 분량으로 소개하며 고구려사를 적극적으로 강조한 반면, 신라사는 문화사를 제외하고는 서술 분량을 축소하거나 비판적인 기조로 일관했다.<sup>62)</sup> 그러나 동시에 “그들 자신이 봉건지배계급의 한사람이었으므로 참다운 인민의 편에 서서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여 싸울 수는 없었다. 오직 봉건통치배들의 평안과 권세

---

58) 위의 책, 20쪽.

59) 위의 책, 28, 31쪽.

60) 위의 책, 38쪽.

61) 위의 책, 41쪽.

62) 위의 책, 50~58쪽.

를 위한 봉건국가의 보존과 안전을 위해서 싸웠던 것이다”라며 고구려의 민족사적 의의와 함께 계급적 한계를 분명히 했다.<sup>63)</sup>

고구려 중심의 삼국 시대에 관한 설명은 ‘발해와 후기 신라’의 남북국 시대에서도 이어진다. 1982년 교과서는 1953년 교과서와 달리 통일 신라와 발해의 남북국 인식을 분명히 했고, 이것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민족사적 의의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1982년 교과서는 “7세기 중엽 신라의 봉건통치배들은 당나라 침략자들을 끌어들이는 죄악적 행동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대주의적 후과는 매우 컸다. 신라 봉건통치배들은 당나라 침략자들을 끌어들이어 백제와 고구려를 반대하는 침략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세나라 일민들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었고 국토의 많은 부분을 당나라 침략자들에게 빼앗기게 하였다”며 외세를 끌어들이 삼국을 통일한 신라를 공격했다.<sup>64)</sup> 이에 반해 1982년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발해의 성립을 기술했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민족의 존엄을 지켜 온 애국심이 강한 민족이다.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 옛 령토에 남은 고구려 유민들은 전후 수십 년 동안 당나라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줄기찬 투쟁을 통하여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냈으며 끝내 새 국가 발해를 창건하였다. … 고구려 인민들은 오랜 기간의 어려운 투쟁을 통하여 당나라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698년에 발해라는 나라를 세웠다.<sup>65)</sup>

---

63) 위의 책, 58쪽.

64) 위의 책, 70쪽.

65) 위의 책, 73쪽.

이처럼 1982년 역사 교과서는 신라의 '죄악적 행동'을 규탄한 반면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민족의 존엄을 지킨 나라로 대조시켰다. '해동성국'으로 일컬어지는 발해를 고구려의 상무적 기풍과 발전한 문화를 계승한 봉건국가로 평가했던 것이다.<sup>66)</sup> 반면 천년왕국 통일 신라에 대한 분석은 서술 분량이 축소되거나 '후기 신라'로 폄하되는 등 비판적인 관점이 지배했다. 9세기 이후 후기 신라의 봉건적 폐해와 농민전쟁이 계급론적 관점에서 부각되었고,<sup>67)</sup> 민족통일 역시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sup>68)</sup> 이는 고조선-고구려-발해-고려-북한으로 이어지는 민족 정통성을 고려한 서술이라 할 수 있다.<sup>69)</sup>

### 3) 2002년 『조선력사』 교과서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초반 들어 소비에트 사회주의가 붕괴하자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 등 민족 담론을 강화하며 사회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사회주의의 위기에서 김일성은 1991년 조선이 '단일민족국가'임을 천명하기도 했다.<sup>70)</sup> 특히 북한은 1994년 단군릉을 복원하며 단군조선을 역사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김정일은 단군을 '조선의 건국 시조'로 불렀다.

66) 위의 책, 74~75쪽.

67) 위의 책, 83~86쪽.

68) 위의 책, 98~99쪽.

69) 통일교육원,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 29~30쪽.

70) 『로동신문』, 1991년 8월 5일.

단군조선의 민족사적 원류에 뚜렷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이전의 교과서들과 달리 2002년에 출간된 『조선력사(고등학교 3)』 교과서는 단군조선의 복원과 함께 원시와 고대 사회의 민족 형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sup>71)</sup> 예를 들어 2002년 역사 교과서는 <머리말>에서 “조선 역사를 깊이 학습하는 것은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가지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라고 언급하며 조선민족제일주의 담론을 역사 교과서에 적용했다.<sup>72)</sup> 또한 2002년 교과서는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입니다”<sup>73)</sup>라며 단군조선의 역사를 강조하고 1982년 교과서보다 원시 공동체의 민족사적 원류를 더욱 강조했다.

우리 나라에서 신인의 뼈화석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대표적인 것은 평양시 승호구역 만달리에서 드러난 <만달사람>이며 이밖에 평양과 그 일대에서는 <룡곡사람>, <금천사람>, <승리산사람>, <풍곡사람> 등이 발견되었다. <만달사람>을 비롯한 신인들의 모습에는 조선사람의 특징이 이모저모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에서는 사람이 발생하여 원인-고인-신인으로 발전하면서 오랜 세월을 살아 왔으며 마침내 조선사람의 조상으로 되었다.<sup>74)</sup>

71) 북한은 1995년 『조선력사』부터 단군조선의 역사를 서술했다. 리인형, 『조선력사(고등학교 2)』, 20~23쪽.

72) 오영철, 『조선력사(고등학교 3)』, 2쪽.

73) 위의 책, 3쪽.

74) 위의 책, 7쪽.

2002년 역사 교과서는 구석기 시대의 고인과 신인 모두 평양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원인-고인-신인에 이어 등장한 ‘조선옛류형사람’<sup>75)</sup>이 우리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었다고 서술했다. 이처럼 2002년 역사 교과서에서 드러난 가장 큰 변화는 과거 교과서에 없었던 ‘조선옛류형사람’의 등장이다. 이 역시 단군조선과 단군민족시조론을 도입하여 조선민족의 조상과 원류를 체계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조선옛류형사람은 신인에 이어 우리 나라 땅에 산 사람이다. 평양시 강동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조선옛류형사람의 뼈화석이 발견되었다. 조선옛류형사람은 몸구조가 완성된 얼굴모습에서 조선사람의 특징이 명백히 나타나는 우리 민족의 시조이다. 조선옛류형사람은 수천 년을 살아오는 과정에 현대조선사람으로 되었다.<sup>76)</sup>

2002년 역사 교과서는 신석기 시대 신인에 이어 등장한 조선옛류형사람이 조선사람의 특징이 명백히 드러난 ‘우리 민족의 시조’였고 이

---

75) 『조선전사』 1권은 ‘조선옛류형사람’의 학술적 정립을 시도하며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과학적 자료들과 그 연구성과들은 조선사람이 오랜 역사적 시기를 두고 우리 조국강토에서 형성되어 하나의 피줄을 이어온 단일한 집단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기술했다(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64쪽). 북한의 역사학계는 주체사관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선옛류형사람을 근거로 하여 평양 중심의 민족단혈성기원론을 제기했고(이경섭, “북한 역사학계의 고조선 종족집단 인식의 변천과 특징,” 99~100쪽), 1999년 『조선력사』부터 조선옛류형사람의 개념을 설명했다(오영철·한영찬, 『조선력사(고등중학교 3)』, 7~8쪽).

76) 오영철, 『조선력사(고등중학교 3)』, 9쪽.

조선옛류형사람이 수천 년을 거쳐 현대의 조선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단군민족의 복원과 함께 오천 년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민족의 시조로서 조선옛류형사람의 역사가 필요했고, 이러한 서술을 통해 우리 민족의 원류가 신석기 시대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2002년 교과서 역시 1982년 교과서와 유사하게 역사 발전에 관하여 계급론적 관점을 유지했고 신석기 시대 씨족 공동체의 분화, 계급 형성, 종족 간 전쟁 및 국가 형성을 통해 원시 공동체 사회가 노예소유자 사회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했다.<sup>77)</sup> 이로써 “우리 민족이 세운 첫 국가”로서 노예 소유자 국가인 고조선이 수립된 것이다.<sup>78)</sup>

이처럼 2002년 역사 교과서는 신석기 시대의 부계 씨족 공동체에 이어 고조선의 형성과 함께 한 조선옛류형사람에서 민족의 원류를 찾으려 했다. 씨족-부족-종족-민족으로 암묵적으로 가정된 혈통적 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없이 단군조선과 함께 한 조선옛류형사람의 뿌리가 강조된 것이다. 그러나 고조선에서 등장하는 민족 개념과 서사에서 원초적인 종족의 실체와 발전에 대한 해명은 부재했고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초기 국가의 형성을 설명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리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친척,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을 알게 되면서부터 한 피줄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되었다. 씨족은 바로 이렇게 생겨났다”<sup>79)</sup>는 설명에서 드러나듯이, 고조선의 계급국가가 성립하는 종족적 배경에 씨족 사회의 ‘피줄’이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7) 위의 책, 12~14쪽.

78) 위의 책, 14쪽.

79) 위의 책, 7쪽.



무엇보다도 단군조선의 복원과 고조선의 민족사적 원류에 대한 강조는 2002년 역사 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이다. 2002년 교과서는 “조선을 세운 왕은 단군이였다. 그래서 고조선을 단군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sup>80)</sup>며 ‘단군조선’의 역사적 기원을 분명히 밝혔다.

단군은 지금으로부터 5,000여 년 전에 평양에서 태어났다. 평양지방은 대동강이 감돌아 흐르고 높고 낮은 산들과 기름진 들이 펼쳐져 있어 예로부터 사람들의 삶의 보금자리로 되어 있었다. 평양에서는 검은모루 유적을 남긴 원인을 비롯하여 고인, 신인이 발생하여 대를 이어 살아 오면서 깊이 뿌리를 내렸고 그들은 마침내 조선사람의 선조로 되었다. 단군의 아버지는 환웅이였다. 환웅은 단군이 태어날 때 박달종족련맹의 추장으로 있었다.<sup>81)</sup>

2002년 역사 교과서는 오천 년 전에 태어난 단군이 ‘조선사람의 선조’가 되어 우리 민족의 첫 국가인 고조선을 세웠다고 서술했다. 특히 2002년 교과서는 “단군은 나라를 세운 이후 같은 겨레들인 이웃의 여러 종족들을 통합하여 령토를 확장하였다”<sup>82)</sup>고 언급하면서 고조선의 정체성에 혈통적 종족의 통합이 있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교과서는 “옛날 책에 쓰여 있는 고조선의 건국전설인 단군신화는 단군이 평양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운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평양시 강동군에는 단군의 무덤이 있다. 단군은 우리 민족의 풍습대로 죽은 다음 자기의

---

80) 위의 책, 14쪽.

81) 위의 책, 15쪽.

82) 위의 책, 20쪽.

고향인 평양에 묻혔던 것이다”<sup>83)</sup>라며 단군의 무덤 이외에 단군조선과 관련한 뚜렷한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또한 2002년 역사 교과서는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고조선이 후국(제후국)인 부여와 구려를 통치하고, 구려에서 주몽이 최초의 봉건국가인 고구려를 수립한 것으로 서술했다.<sup>84)</sup> 역사 교과서는 “지난 날 우리나라 력사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강하였던 시기는 고구려 시대였다. 고구려는 B.C. 277년부터 668년까지 거의 1,000년 동안 강성대국으로서의 위력을 떨쳤다”<sup>85)</sup>며 고구려를 ‘강성대국’으로 명명하고 최초의 봉건국가로서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했다. 단군조선을 복원한 2002년 교과서는 단군조선과 강성대국 고구려와 발해를 잇는 민족사적 의의를 강조한 것이다.

반면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을 “동족의 나라들에 대한 배신과 신라-당나라의 비밀협약”<sup>86)</sup>으로 규정하여 과거보다 비판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2002년 역사 교과서는 “신라 봉건통치배들은 《비밀협약》에 따라 당나라 침략세력을 끌어 들여 660년에 백제를,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하고 “신라 봉건통치배들은 령토를 넓히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성한 우리 조국 땅에 처음으로 외세를 끌어 들이고 동족의 나라들을 멸망시킨 배족의 무리였다”<sup>87)</sup>고 강변했다. 이처럼 2002년 교과서는 민족

---

83) 위의 책, 15~16쪽.

84) 위의 책, 20~22쪽.

85) 위의 책, 25쪽.

86) 위의 책, 48쪽.

87) 위의 책, 50쪽.

자주의 주체사관을 강조하여 고구려의 강성대국을 강조하고 신라의 배족 행위를 비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2년 역사 교과서 역시 발해와 후기 신라의 발전을 남북국 시대로 묘사하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서 고구려 사람들의 상무적 기풍과 발전된 문화를 이어 받아 강력한 봉건 국가로 발전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sup>88)</sup>며 발해를 강성대국 고구려를 계승한 자주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역사적 평가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고조선-고구려-발해를 잇는 고대와 중세의 혈통적 민족국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 4) 2013년 『역사』 교과서

2013년 북한의 『역사(고급 1)』 교과서는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단행한 2013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출간되었다. 이와 함께 출간된 역사 과목의 교수요강인 『역사교수참고서 고급중학교 1』은 단군조선과 단일민족의 개념을 정립하며 원초론적, 영속론적 민족 담론을 강화했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고조선-고구려-발해의 민족사를 강조했다.

고급중학교 역사교수참고서는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문명의 길에 들어섰으며 세계문명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한 민족이라는 뚜렷한 감정을 간직하도록 한다”<sup>89)</sup>며 원초론적, 영속론적 근원주의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3년 교과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

88) 위의 책, 59쪽.

89) 오영철·정성철·리정희·강철민·김혜은, 『역사교수참고서 고급중학교 1』, 3쪽.

로 하는 대동강류역은 인류의 발생지의 하나이며 조선사람의 발원지이다”<sup>90)</sup>라고 서술하며 평양 중심의 역사관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씨족은 공동로동을 하는 과정에 한피줄로 맺어진 원시인들의 사회적 집단이었으며 생활의 기본단위였다”며 원시 공동체의 종족적 기원에 서 형성된 씨족 사회의 ‘한 피줄’을 강조했고,<sup>91)</sup> 조선민족의 직접 조상인 조선옛류형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체계화했다.<sup>92)</sup>

특히 2013년 교과서에서 두드러진 것은 단군조선과 단일민족 개념을 정립한 것이다. 2013년 역사 교과서의 교수요강은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단일성과 우리 나라 땅에서 원시사회의 발전과정이 합법적으로 흘러왔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sup>93)</sup>며 원시 공동체의 기원에서부터 이미 단일민족 담론을 전제했다.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원초론적 민족 담론에서 2013년 역사 교과서는 “고조선은 단군에 의하여 동방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우리 민족의 첫 국가였다”<sup>94)</sup>고 정의하고 고조선을 단군에 의해 세워진 민족의 첫 국가로 규정했다. 2013년 교과서는 단군을 “B.C. 30세기 초 처음으로 고대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조선민족의 원시조”<sup>95)</sup>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역사적 사실로서 단군의 의미를 강조했다.

---

90) 오영철·정성철·박영철·차영남·염상진, 『역사(고급 1)』, 5쪽.

91) 위의 책, 9쪽.

92) 위의 책, 10~11쪽.

93) 오영철·정성철·리정희·강철민·김혜은, 『역사교수참고서 고급중학교 1』, 25쪽.

94) 오영철·정성철·박영철·차영남·염상진, 『역사(고급 1)』, 18쪽.

95) 위의 책, 20쪽.

단군은 평양성에 도움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으며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다. 《단군신화》는 이렇게 환상적으로 신비롭게 엮여졌지만 단군에 의한 고조선의 성립과정과 수도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평양시 강동군에 있는 단군릉에서 발굴된 단군과 그의 안해의 유골, 여러 가지 유물들은 단군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재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고조선은 B.C. 30세기 초에 단군에 의하여 평양을 수도로 하여 세워진 우리 민족의 첫 국가였다. 이때부터 우리 민족은 원시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국가문명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sup>96)</sup>

2013년 역사 교과서는 한민족 최초의 국가로서 고조선의 의의를 강조하고 우리 민족의 시조로서 단군을 부각시켰다. 단군신화는 환상적으로 엮여졌지만, 단군이 실재한 역사적 인물이자 민족의 시조였다고 서술하면서 원초론적인 민족 담론을 최고조로 상승시켰다. 그러나 “건국 이후 3000년간 존재하였다”<sup>97)</sup>는 고조선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은 부재하는 가운데 2002년 역사 교과서와 유사하게 부여와 고구려를 단군조선의 후국으로 평가하는 데 머물렀다.<sup>98)</sup>

고조선 건국과 발전에 관한 불명확한 고증과 설명은 이후 고대국가의 민족 관련 이해와 평가에서도 나타난다. 3000년 역사를 가진 고조선에 이어 부여, 고구려, 삼한 등의 부족국가 시대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시대로 이어졌고 이 부족국가들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와 분열된 우리 종족들의 국가였다는 것이다. 또한 고조선-고구려-발

96) 위의 책, 19쪽.

97) 위의 책, 21쪽.

98) 위의 책, 24~25쪽.

해의 민족사적 연속성을 강조하는 2013년 교과서 역시 고구려를 삼국 통일을 주도한 모범으로 평가한 반면<sup>99)</sup> 당을 끌어들이 삼국을 통일한 신라를 ‘사대매국’으로 비난했다.<sup>100)</sup> 남북국의 발해 역시 이러한 기조에서 평가되었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였다. 대조영 자체가 고구려의 옛 장수였고 발해 건국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고구려 유민들이었다. 발해는 기본 주민은 압도적 다수가 고구려 사람들이었고 지배층도 고구려 사람들이었다. 발해는 고구려의 옛 령토를 차지하고 그 문화와 풍속을 계승하였다.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도 스스로 고구려라고 하였고 일본에서는 발해에 보내는 사신을 고려사(고구려에 보내는 사신)라고 표현하였다.<sup>101)</sup>

2013년 역사 교과서에서는 신라사가 대폭 축소되는 가운데 고구려사와 발해사가 확장되는 변화가 있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역사관에서 고조선-고구려-발해를 잇는 민족사적 의의가 더욱 강조된 것이다.<sup>102)</sup>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민족사적 의의를 강조한 2013년 교과서는 말갈족 피지배층이 다수였던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했고 후기 신라에 대해서는 봉건제의 계급적 모순을 지적하는 등 비판적인 관점으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역사(고급중학교 2)』 교과서는 “고려는 후백제, 후기신라는 물론 발해의 적지 않은 령토와 주민들을 하나

---

99) 위의 책, 56쪽.

100) 위의 책, 69쪽.

101) 위의 책, 86쪽.

102) 오영철·정성철·리정희·강철민·김혜은, 『역사교과참고서 고급중학교 1』, 7쪽.

의 주권밑에 통합하고 오늘의 우리 나라 판도우에 선 첫 통일국가로 되었다”며 신라가 아닌 고려에 의한 민족통일을 부각시켰다.<sup>103)</sup> 2014년 역사 교과서는 “고려에 의하여 국토가 통일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통일된 한나라, 한강토에서 살게 되었으며 단일민족국가로서 경제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나라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떨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며 고려에 의한 민족통일과 단일민족론을 정립하기에 이르렀다.<sup>104)</sup>

#### 4. 나오며

이 논문은 1953년, 1982년, 2002년, 2013년 북한의 고등학교 『조선력사』 교과서의 고대사 인식과 민족 서사에 대한 담론 분석을 통해 원초론적, 영속론적 근원주의에 입각한 민족 정체성 교육을 통시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국가 형성기 유물사관에 기초했던 북한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1970년대 이후 주체사관을 정립하며 반제국주의에 기반한 자주적 역사관을 강조했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체사관과 단군민족 사관을 결합하여 체제의 통합을 모색해 왔다.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주창한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도 혈통적 단군민족과 이념적 김일성민족을 결합하여 체제를 정당화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있다.

역사적 추이와 정치적 변화에 따른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

---

103) 오영철·정성철·박영철·차영남·염상진, 『력사(고급중학교 2)』, 9쪽.

104) 위의 책, 9쪽.

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국가 형성기부터 혈통 중심의 원초론적, 영속론적 민족 이해를 전제했고, 이후 주체사관과 단군민족의 역사를 결합하며 근원론적 민족 정체성 교육을 강화해 왔다. 초기 역사 교과서에서 부정했던 단군조선을 복원하여 단일민족론의 근거로 삼은 것은 조선민족제일주의의 기치 아래 혈통을 중심으로 조선민족의 단일성, 우수성, 단결성을 모색하고, 이를 김일성-김정일민족으로 연계시켜 체제를 수호하고자 한 것이다. 혈통과 이념의 만남 속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고조선-고구려-발해-고려-북한으로 이어지는 민족사적 정통성이 확립된 것이다.

바야흐로 김정은 정권의 2013년 교육과정 개정에서 극단적인 우상화와 호전적인 반미군사주의적가 약화된 것을 고려하면 『조선력사』에서 원초론적, 영속론적 민족 담론과 도구론적 민족 정치화가 강화된 것은 역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남한의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원주의적 민족 정체성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통일의 시대에서 폐쇄적인 민족 담론을 극복하는 것이 남북한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으며 남과 북 모두 근원론적 민족 정체성을 성찰하고 미래 지향의 교육적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 투고: 2024.09.27. / 수정: 2024.10.30. / 채택: 2024.11.15.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 교육성, 『조선력사(상)』(동경: 학우서방, 1962).
- 김석형·박시형, 『조선력사』(동경: 학우서방, 1953).
-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48~273쪽.
- \_\_\_\_\_,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김정일 선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420~441쪽.
- 리지린, 『고조선연구』(평양: 과학원출판사, 1963).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1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사회과학출판사 엮음,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 손영중, 『고구려사』, 제1권(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 오영철, 『조선력사(고등중학교 3)』(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 오영철·정성철·리정희·강철민·김혜은, 『력사교수참고서 고급중학교 1』(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4).
- 오영철·정성철·박영철·차영남·염상진, 『력사(고급 1)』(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
- 오영철·한영찬, 『조선력사(고등중학교 3)』(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9).
- 한영찬·리금옥·최창길·박영철·염창진, 『력사(고급중학교 2)』(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4).
- 홍성찬·신예순·강백영, 『조선력사(고등중학교 3)』(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2).
- 황철산, “고조선의 위치와 종족에 대하여,” 『고조선에 관한 토론 논문집』(평양: 과학원출판사, 1963), 116~136쪽.

## 2) 논문

박시형, “발해사연구를 위하여,” 『력사과학』, 1962년 제1호(1962), 1~32쪽.

주영현,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자,” 『고고민속』, 1967년 제2호(1967), 18~26쪽.

## 3) 신문

『로동신문』, 1991년 8월 5일.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가트, 아자(Azar Gat)·알렉산더 야콥슨(Alexander Yakopson), 『민족: 정치적 종속성과 민족주의, 그 오랜 역사와 깊은 뿌리』, 유나영 옮김(서울: 교유서가, 2020).

백남운, 『조선사회경제사』, 심우성 옮김(서울: 동문선, 2004).

손진태, 『중학교 사회생활과 역사부분 우리 나라 생활(대한민족사)』(서울: 을유문화사, 1950).

신용하, 『한국민족의 형성과 민족사회학』(서울: 지식산업사, 2001).

신재호, 『조선상고문화사 외』, 박기봉 옮김(서울: 비봉출판사, 2007).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서울: 소나무, 1999).

정구복, 『한국중세사학사(I)』(서울: 집문당, 1999).

통일교육원,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서울: 통일교육원, 2005).

한철호·강승호·권나리·김기승·박지숙·임선일·조왕호·조용래, 『고등학교 한국사』(서울: 미래엔, 2020).

## 2) 논문

이경설, “북한 역사학계의 고조선 종족집단 인식의 변천과 특징,” 『백산학보』, 제106호(2016), 89~111쪽.

이정빈, “1950년대 북한 역사교과서의 민족형성 이해와 한국사 체계의 변화,” 『한국사학보』, 제83호(2021), 65~97쪽.

전덕재, “남북한학계의 한국고대사 연구동향과 과제: 2000년 이후 연구를 중심으로,” 『동양학』, 제72호(2018), 173~214쪽.

### 3. 국외 자료

#### 1) 단행본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London and New York: Verso, 1991).

Armstrong, John, *Nations Before Nationalism*(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2).

Gellner, Ernest, *Nations and Nationalism*(Oxford: Basil Blackwell, 1983).

Hobsbawm, Eric and Terence Ranger(eds.), *The Invention of Tradition*(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Oguma, Eiji, *A Genealogy of 'Japanese' Self-Images*(Melbourne: Trans Pacific Press, 2002).

#### 2) 논문

Grosby, Steven, “The Primordial, Kinship and Nationality,” in Atsuko Ichijo and Gordana Uzelac(eds.), *When is the Nation?: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ories of Nationalism*(London: Routledge, 2005), pp. 56~78.

# The Changes in Ancient History Narratives and National Discourse in North Korean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Kang, Jin Woong(Kyonggi University)

This article explores the changes in ancient history narratives and national discourse in North Korean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North Korean history textbooks describe Korea's ancient history based upon historical materialism during the early state building and emphasized anti-imperialism and the Juche view of history after the 1970s. As a result of this, they valued the history of Goguryeo and Balhae whereas they devalued the unification of three kingdoms by Silla. Since the mid-1990s, North Korea has restored the history of Dangun Joseon and highlighted the national origin of old Joseon by introducing the notion of an old type Korean people. In particular, since the 2013 curriculum revision, the North Korean regime has established the bloodline centered discourse of a single-race nation and stressed the national continuity of old Joseon, Goguryeo, and Balhae and a Pyongyang-centered view of history through fusing historical materialism and the view of Dangun

nation into the Juche view of history. In spite of various historical and political changes, North Korean history textbooks have assumed the bloodline centered primordial, perennial fundamentalism and thus reinforced national identity education in this background. Through a comparative discursive analysis of the ancient history narrative and national discourse in the history textbooks published in 1953, 1982, 2002, and 2013,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ical changes in national identity education of North Korea.

Keywords: Korean history, national discourse, Dangun Joseon, a single-race nation, primordialism, perennialism, bloodline